

일자리 정책 '우수상' 수상

군산시, 전국 평가서 2년 연속 우수한 성적 일자리에 대한 지자체장 의지 노력 인정받아

군산시 일자리정책이 전국 평가에서 작년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시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1.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에서 일자리 정책분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8일 김두경 고용부 군산지청장으로부터 '우수상' 상패를 전수받았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일자리 대상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24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 지표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치단체의 고용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를 포상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0년도 일자리정책 추진 방향 및 실적에 대한 평가로 시는 산업체질 개선과 연계한 일자리 사업, 상권회복을 통한 골목상권 일자리 유지 청년 지역정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전순환 일자리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삼고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에 대비한 일자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노사

민정의 협력으로 군산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통해 지난 2월 정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정'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산업단지 내 구조조정 기업이 다수 있었음에도 고용부 군산지청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퇴직자들의 이직을 도왔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로 연계한 점도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타 지자체에 모범사례로 소개됐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취약계층 시민을 고려해 더욱 적극적인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에 힘쓴 결과, 지난 한 해 2천4,252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목표 대비 125.7% 달성해 시민생계 안정을 도모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군산시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자연재해 예방시설 운영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군산시, '우리가 지킨다'

자연재해 예방시설 운영·상황관리 만전

군산시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자연재해 예방 시설 운영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경포천 하류부에 위치한 경포 배수펌프장과 나운동에 위치한 우수 저류조 등 14개의 방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설은 해안도시 특성상 많은 비가 내리고 바닷물 수위가 높아져 자연적인 배수가 어려워져 도심의 침수가 예상될 때 배수갑문을 닫고 배수펌프를 가동해 빗물을 바다로 강제 배수시키는 배수펌프장과 일시적으로 쏟아지는 빗물을 임시로 저장해 침수를 예방하는 시설인 우수저류조와 우수지 등이 있다.

시는 우기철 방재시설 운영을 위해 시설마다 담당자를 지정했으며, 각 시설 담당자는 현장 상주 근무에 돌입,

비상 시 시설의 가동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준비를 하고 있다.

또 시는 원격으로 ON/OFF를 할 수 있는 원격시설을 갖춘 방재시설운영실에서 경포천 구암천 등 주요 배수 시설과 관내 침수우려지역 및 관심지역 등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수문조작 및 배수펌프 가동 등 시설을 실시간 관리한다.

또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난종합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으며, 특히 호우특보 발효 시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해 상황총괄, 인력지원, 피해조사 등 13개 협업부서 실무반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재난대응 각 단계별로 상황관리회의 및 현장 안전관리 활동, 인명 구조, 피해지파 이재민 지원, 응급복구 등을 실시한다. /군산=한영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립도서관 어린이 도서 기증

군산시 시립도서관은 전북공공공영어린이집연합회(회장 송정임)와 (사)출산육아교육협회(대표 양진)가 8일 200만원 상당의 어린이 그림책 200권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강일준 시장을 비롯해 송정임 전북공공공영어린이집 연합회장과 최창호 시의원, 임수희 군산공공형어린이집 지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기증식은 전북공공공영어린이집연합회와 (사)출산육아교육협회의 사회공헌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교육은 감동이다'라는 슬로건에 맞게 아이들에게 책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독서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뤄졌다.

송정임 회장은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독서습관을 기르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군산=남현봉 기자

군산대, 호남지역본부 외래잡초 제거 행사

군산대학교는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에서 개최한 '외래잡초 방제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군산시,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고, 참석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민관학 합동으로 군산항 주변의 외래잡초 제거를 수행하였다.

서해안 물류의 요충지인 군산항의 외래생물 관리 중요성이 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군산대는 2018년부터 붉은불개미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외래검역해충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인 합동 예방 및 방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군산대는 외래종 연구와 관리를 접합하기 위한 '외래생물관리기술개발센터'를 두고 있으며 검역본부, 국립생태원 등 유관 기관과의 대의 협력에 나서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익산시, 제1회 추경 1조6281억원 편성 시의회 제출

코로나 극복·민생경제 안정화 출산장려... 주민체감형 예산안

익산시가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화, 출산장려 등에 중점을 둔 주민 체감형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6281억원이다. 본예산 1조4907억원보다 1374억원(9.2%) 증가했다.

추경재원은 국·도비 보조금과 순세 계입여금, 교부세 정산분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편성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취소·축소된

행사성 경비, 국의 여비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시민 중심 예산편성으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익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발행·운영 97억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22억원, 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 3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 보전 11억원, 전북도 재난지원금 282억원 등이다.

또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위해 도시가스 보급 3억50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장 환경 개선 지원 23억원 등을 투자한다.

청년·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중앙시

장 복합창년물 운영 15억8000만원, 근로장년 수당(추가분) 5억원, 다둥이 사랑 지원금 3억5000만원 등이 활용된다.

관광시설 조성과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는 신홍자수지 돌레길 조성 9억원,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 10억원, 미륵사지 지방도 722호선 이설사업 10억원 등이 편성됐다.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14일 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시민 맞춤형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원광대 ROTC 총동문회, 창설 60주년 기념행사 개최

원광대학교 ROTC 총동문회(회장 신용식 80학번, 22기)는 2021년 대한민국 ROTC 창설 60주년 기념행사를 최근 서울 그랜드 힐 컨벤션에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수립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신용식 총동문회장과 박맹수 총장 등 9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ROTC 창설 60주년을 축하하고, 합동입관 기념식 및 전역식을 통해 결속을 다졌다.

행사는 67학번인 ROTC 9기생들의 장교입관 50주년, 77학번 19기생 입관 40주년, 87학번 29기생 입관 30주년, 97학번 39기생 입관 20주년, 07학번 49기생들의 입관 10주년을 기념하고, 2021년

6월 30일자로 전역한 57기생들의 전역을 축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박맹수(원광대 ROTC 17기) 총장이 참석해 축하 분위기를 띄웠으며, 박맹수 총장은 "원광대가 양적 성장시대에서 질적 성숙시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에 있는 16만 동문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번 행사가 각 분야 동문의 결속을 촉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원광대 ROTC(128학군단)는 1968년 6기 38명 입관을 시작으로 총 3,492명의 장교와 중장 2명, 준장 5명 등 7명의 장군을 배출했으며, 원광대 ROTC 총동문회는 전국 최고의 단결력

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차기 회장인 김상현 수석부회장을 중심으로 모교 총동문회 산하단체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고 있다.

또한 원광대는 ROTC의 요람인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에 전국 117개 학군단 중 처음으로 교화 및 교복 식수행사를 진행하고, 지난 4월에는 육군학생중앙군사학교 내에 원광수목존을 조성하는 등 원광대 ROTC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신용식 회장은 "이번 행사가 원광대 ROTC 동문의 하나 됨을 확인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매년 대한민국 ROTC의 날이 원광대 ROTC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황철호 부시장, "주요 현안방안 함께 찾아갈 것"

지난 1일 부임한 황철호 군산시 부시장이 신속한 현안업무 파악을 위해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정 주요 쟁점사항을 점검했다.

황 부시장은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자치행정국을 시작으로 국·소별 주요업무 보고회를 통해 신속하게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일상적인 업무보고는 지양하고, 부서별 중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문제점 및 향후 대책 등을 상호 심도있게 논의했다.

황철호 부시장은 "코로나 19로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창의적 행정으로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장의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해결방법을 같이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부서에서는 언제든지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군산=한영봉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